

## 최악가뭄에 정수장 고장...광주 수돗물 수만 '유실'

정화된 물 배수관 빠져나가지 못해 정수장 바깥으로 넘쳐 서·남·광산구 급수 중단...지은지 30년 돼 노후화 추정도

최악의 가뭄으로 광주시가 시민들의 절수운동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 정수장 밸브 고장으로 수돗물 수만이 유실됐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12일 새벽 4시20분께 남구 덕남정수장의 상수도 밸브가 고장나 잠겼다. 정화된 물이 배수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서 정수장 바깥으로 흘러 넘치고 있다. 흘러넘친 물로 주변 편도 1차로가 침수되기도 했다. 잠긴 밸브가 풀리지 않으면서 오후 1시부터는 배수지인 서·남·광산구에 급수가 중단되고 있다. 시는 지역민들에게 안전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을 투입해 긴급 복구 작업을 펼쳤다.

서·남·광산구로 향하는 밸브를 강제로 여는 동시에 주암호에서 들어오는 취수 밸브를 잠그는 작업을 하면서 정수장 범람을 최소화했다. 침수된 도로에는 굴착기 등 중장비 2대를 투입해 배수 작업을 벌였다. 현재까지 유출된 수돗물의 양과 긴급복구 완료 시점은 불투명하다. 당국은 밸브 고장에 다가 여러 원인이 겹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수밸브 침수에 따른 고장으로 추정됐으나 사고직전인 오전 3시30분께 정수장을 연결하

는 통신팜에 오류가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은 지 30년이 가까이 되면서 노후화에 따른 문제로도 추정하고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유출된 수돗물 양은 수만여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복구를 마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덕남정수장은 하루 평균 26만t을 정수해 서구와 남구, 광산구로 보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1월부터 수돗물 20% 절약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김재환기자

## 영업 제한·화장실 불편 휴일 갑작스런 단수 '혼란'

광주 남구 덕남정수장 밸브 고장으로 서구·남구·광산구 일대 수돗물 공급이 끊겨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가뭄으로 제한 급수가 예상되는 상황에 소중한 물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20분께 주암호에서 광주 남구 덕남정수장으로 들어오는 상수도 수압 밸브가 고장났다. 덕남정수장이 맑은 물을 내보내는 서구·남구·광산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물 공급이 중단됐다. 단수되기 1시간 20여분 전 안내 문자를 받은 시민들은 뒤늦은 단수 통보에 불편을 호소하며 신속한 복구를 바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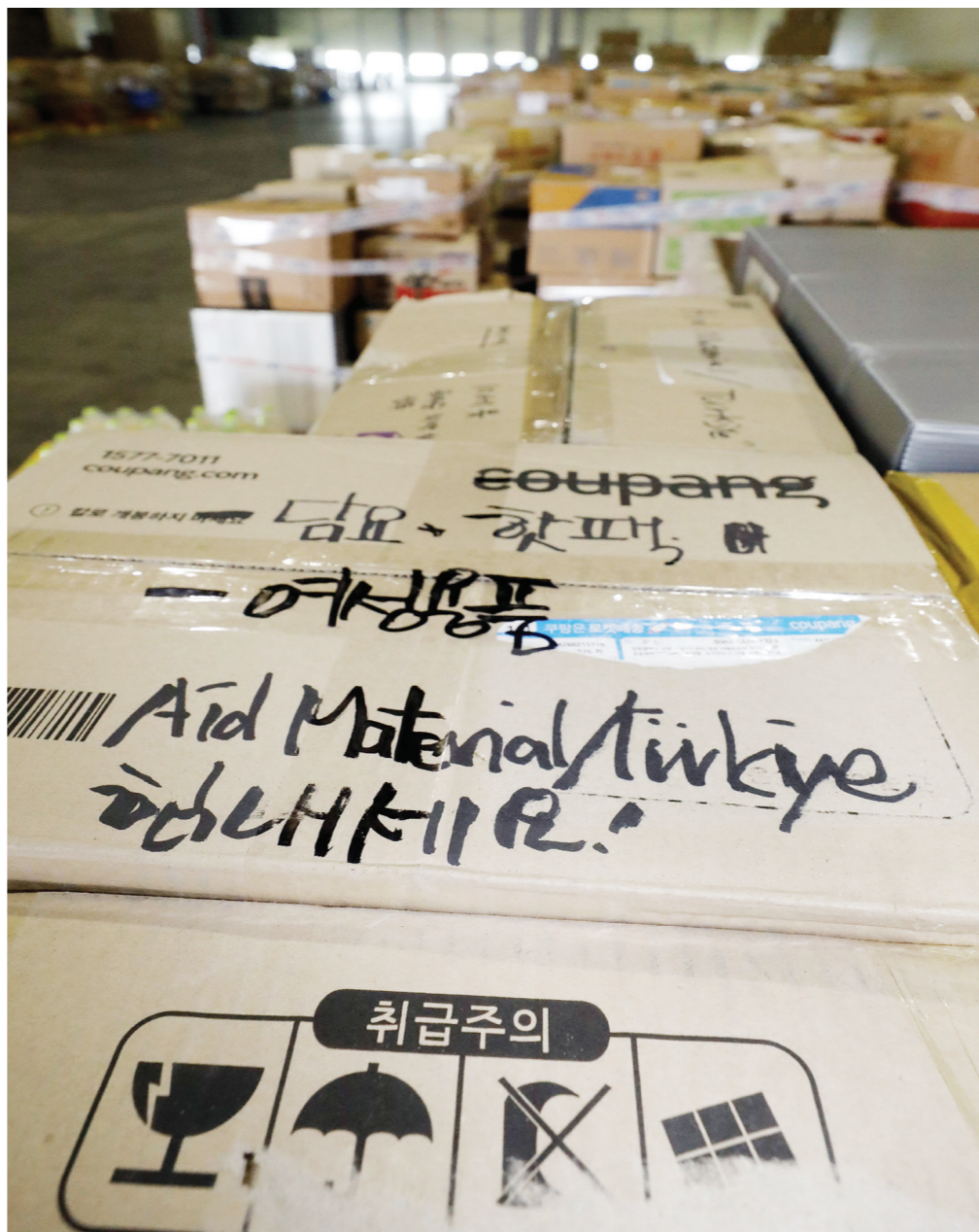
일부 시민은 장시간 단수를 우려하며 욕조에 급히 물을 받았다. 단수 직전 설거지나 세탁을 마치고 분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구 치평동 주민 공모(56·여)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이후 광주시 예고 문자를 보고서야 단수 소식을 접했다”며 “물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황에서 오후 1시 경각이 되니 일체 수돗물이 나오지 않았다. 화장실 용변 문제와 주중에 밀린 빨래도 못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서구에 사는 직장인 송모(34·여)씨는 “언제쯤 급수가 정상화되는 지도 알 수 없어 답답하다. 시에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당·카페와 목욕탕 등 물 사용량이 많은 자영업자들도 영업에 차질을 겪었다. 서구 한 대형 브런치 카페는 단수 소식 이후 손님들 받지 않고 있다. 휴양물이 섞여나온 탓에 커피를 내리는 기계가 고장날까 염려, 커피류도 일체 주문을 받지 않고 있다. 남구 주월동 한 목욕탕에선 “단수됐는데 영업하느냐는 문의전화까지 30통이나 빚발쳤다. 광산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46)씨는 “식자재 다듬고 저녁 장사를 준비해야하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 걱정이 크다”면서 “단수라도 되면 영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수장 밸브가 고장나면서 이날 오전까지 약 5만t의 수돗물이 도로로 새어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뭄에 따른 제한 급수 위기로 절수 운동 중인 상황에 물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31)씨는 “자영업자로서 단수 운동 적극 동참해왔다”며 “단수는 카페 운영 중단과 직결돼 우려하고 있었으나 이번 일로 제한 급수 일정이 당겨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 광주 택시요금 인상 초읽기...업계·시민 '한숨'

업계 “물가 상승률 반영해 최소 요금 4600원 돼야” 시민 “급작스런 큰 폭 인상 걱정...행정 적극 중재를”

광주 지역 택시 요금 인상안을 두고 업계와 시민들이 제각기 다른 이유로 불만을 내리고 있다. 12일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 등 지역 택시산업 관련 5개 단체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광주시청 정문에서 택시 기본 요금 인상 촉구와 해당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단체는 승객 감소와 물가 상승, 전액관리제 도입 등을 이유로 기본 요금을 4600~4800원으로 올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할 방침이다. 현재 광주 지역에 법인 택시 회사는 76곳으로 총 3364대를 운영하고 있다. 업체 당 하루 20~50대씩 운행되고 있다. 인상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이다. 업계는 지난 2019년 대비 인건비가 10%, 연료비가 40% 올랐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계산된 법인 택시 업계의 지난해 월간 손익분기점은 고용된 택시 기사 1명 당 411만 2500원이지만, 이를 맞춰 벌어오는 기사 수는 20%에 불과하다고도 설명한다. 여기에 지난 2020년 택시 기사들이 고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가 도입되면서 인건비가 사측 운영비를 뛰어넘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기본 요금 3300원이 산정된 지난 2017년의 원가를 시중 물가 상승률에 대입할 경우 6년이 지난 현재 최소 4600

원을 받아야 한다”며 “오는 2026년까지를 계산할 경우 최대 5000원까지도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는 업계에 4000원 이상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내용이 적용될 경우 올해는 기본 거리(4.85km)당 600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 1대 당 월 45만 원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적정 인상폭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시민들은 업계의 대폭 인상 주장이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일주일에 10회 가까이 출·퇴근길 택시를 이용한다는 지역민 배모(31)씨는 “업계가 주장하는 4800원은 전국적인 물가 인상을 5%보다 높고 지역 소득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 아닌지”라며 “택시를 이용하는 횟수가 앞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토로했다. 최모(34·여)씨는 “택시비가 조금씩이라도 수어 번 올랐다면 납득했을텐데 큰 폭으로 한 번에 오른다는 것은 호주머니 부담도 일시에 커진다는 것”며 “상식을 넘는 택시비 인상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시민 몫이다. 행정이 책임지고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업계 사정과 시민 주머니 사정을 두루 살핀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3월 중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상 금액은 3800원에서 4300원 범위 내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호기자



튀르키예 힘내세요 12일 인천 중구의 한 물류센터 창고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튀르키예 지원 구호물품이 가득 쌓여 있다.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지주담양군연합사업단